양파 값 폭락에 재배면적 감소

전남 6676ha …올해 평균 도매가 지난해보다 45.2% 급락
마늘 재배면적 전국 증가에도 전남은 5년 연속 감소 추세

최근 양파 소비감소와 재고량 증가로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올해 전남 양파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1.5%(-100ha) 감소했다.

전남 마늘 재배면적은 5년 연속 감소 추세다.

1일 통계청 '2022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남 양파 재배면적은 6676ha(1ha=1만㎡)로, 전년보다 1.5%(-100ha) 감소했다.

전국 재배면적은 1만8461ha에서 1만7655ha로, 4.4%(-807ha) 줄었다.

전남은 전국 양파 재배면적의 37.8%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전남에 이어 경남(3777ha), 경북(2771ha), 전북(1578ha), 제주(946ha) 순으로 많았다.

올해 양파 재배면적은 경북(-388ha)과 경남(-246ha), 전북(-109ha)에서 크게 줄었다.

경기 재배면적은 276ha에서 369ha로, 33.6%(93ha) 증가했다.

전남을 포함한 올해 전국 양파 재배면적은 가격 내림세가 이어진 탓에 줄었다.

지난해 2분기부터 양파 정식(온상에서 기른 모종을 밭에다 제대로 심는 일) 시기인 10~12월까지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양파 정식기(10~12월) 양파 1kg(상품) 도매가격은 지난해 952원으로, 전년(1277원)보다 25.5%(-325원) 떨어졌다.

올해 들어 1월1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양파 1kg 평균 도매가는 626원으로, 지난해 평균(1143원)에 비해 45.2%(-517원) 급락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동향 자료를 내고 "조생종양파 산지폐기로 5월 양파 가격은 4월보다 상승할 것"이라며 "6월 이후 가격은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 감소로 공급량이 줄어 5월보다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1.7% 늘어난 가운데 전남은 5년 연속 감소 추세다.

전남 마늘 면적은 올해 3887ha로, 전년보다 0.8%(-30ha) 감소했다. 전남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 2017년 6346ha 이후, 6030ha(2018년)→5803ha(2019년)→5326ha(2020년)→3917ha(2021년)→3887ha(올해) 등으로 5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남은 지난 1984년부터 줄곧 최다 마늘 재배면적을 보유해왔지만 지난 2018년 경남과 순위가 뒤집히며 1위 자리를 내줬다.

반면 전국 재배면적은 2만2362ha로 전년보다 1.7%(363ha) 증가했다.

마늘 주산지인 경남(6402ha), 경북(4536ha)에서 재배면적이 각각 11.7%(670ha↑), 1.7%(75ha↑) 늘었지만 전남을 포함한 9개 시·도에서는 면적이 줄었다.

전국 마늘 재배면적 증가는 지난해 마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마늘 1kg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지난 2020년 3767원에서 지난해 5962원으로, 58.3%(2195원) 올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랑의 김치나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왼쪽 두 번째)는 최근 농협 담양군지부, 담양농협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열고 직접 담근 김치 150상자를 장흥과 해남 노인재가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본부,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

경운기 등 야광 반사판 부착 당부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녹동농협은 최근 고흥군 도덕면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이 마련됐다.

이날 전남농협은 야간 운전이 부쩍 늘어난 경운기 등에 야광 반사판을 붙이며 농업인들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농업인들의 안전한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영농철 농기계 사고로부터 지역 농업인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5월2일은 오이먹고 이뻐지는 '오이데이'"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고성신·왼쪽 5번째)는 지난 29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금요장터'를 열고 '오이데이' 홍보를 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농협 광주본부, 금요장터서 홍보

"오이데이 맞아 몸에 좋은 오이 많이 드세요."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29일 광산구 우산동 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3회 금요장터'를 열며 '오이데이'(5월2일) 홍보를 했다고 1일 밝혔다.

평동농협과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금요장터를 찾은 고객들에게 오이를 무료로 나눠주거나 할인 판매를 벌였다.

지난달 15일 개장한 뒤 세 번째를 맞은 금요장터는 매주 다양한 광주산 농축산물이 10~30% 할인된 가격에 직거래된다.

고성신 본부장은 "오이는 운동 후 갈증해소와 숙취해소에 좋은 채소"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을 금요장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 동곡농협, 소형농기계 구입비 60% 지원

예취기·비료살포기 등 135대

광주 동곡농협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소형농기계 135대에 대한 구입금액의 60%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광주시 광산구 하산동 동곡농협 영농자재 판매장에서 진행됐다.

이는 조합원 농기계구입 부담 경감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소형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합원들에게 지원된 농기계는 비료살포기와 예취기, 농약분무기 등이 있다. 동곡농협은 지난 2018년부터 소형농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쳐 이달까지 총 1억400만원을 지원해왔다.

이동운 조합장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업경영비가 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식품부, 인니 팜유 수출금지 장기화 대비 나서

업계와 긴밀히 소통 대응
라면·과자 등 가격 상승 불가피

인도네시아가 라면과 과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팜유 수출 금지를 결정하면서 당국이 식품업계와 소통하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국 내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금지할 계획을 앞서 발표했다"며 "농식품부는 팜유 공급망 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요 식품업체별로 약 2~4개월분 팜유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모든 수입 물량은 말레이시아산이다.

농식품부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지만, 장기화 때 팜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팜유는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수출 중단 조치로 인해 라면·과자 등 상당수 식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도네시아산 팜유 수입량은 총 34만t이다. 이 중 이번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된 종류는 약 20만t이다.

우리나라 식품업계가 들여오는 말레이시아산 팜유는 연간 20만t 가량으로,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 제조에 사용한다.

팜유는 팜 나무의 열매를 쪄서 압축 채유해 만든 식물성 유지로, 식용유나 가공식품 제조에 쓰이는 것은 물론 화장품·세제·바이오디젤 등의 원료로도 활용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